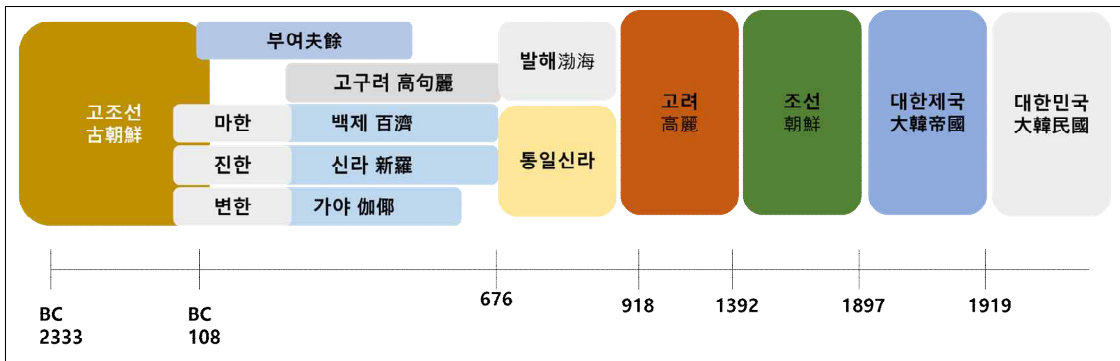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이름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을 부르는 기호입니다. 이름이 있어야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자기만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은 나라에도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국호(國號)나 국명(國名)이라고 부르는데 나라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을 짧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들의 이름은 무엇이였을까요?



한국 연대기

고조선(古朝鮮)이라는 나라는 한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부여(夫餘·扶餘), 삼국시대의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그 뒤에 가야(伽倻), 발해(渤海)가 있었습니다. 삼국이 통일된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高麗), 조선(朝鮮), 대한제국(大韓帝國),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 정부(臨時政府)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국호 중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는 왕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왕국(王國)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조선의 경우에는 '왕국'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고구려 왕국, 백제 왕국, 신라 왕국, 가야 왕국, 발해 왕국, 고려 왕국, 조선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왕국으로 역사를 이어가다가 대한제국에 고종황제가 세워지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의 '제국(帝國)'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되면서는 국민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뜻의 '민국(民國)'이 된 것입니다.